

한동대학교, 포항시-UNAI Korea와 함께 'ESG 식품경영진흥 과정'

신일권 기자 nanaconan@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10.22 20:02



↑ ↑ 외식업 ESG 경영 리더 양성과정 개강 단체사진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한동대학교가 포항시, UN 아카데미임팩트(UNAI) Korea와 협력하여 'ESG 식품경영진흥 과정'을 17일부터 시작했. 외식업 CEO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되며, ESG 경영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과정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동대학교 이한진 교수는 "올해는 전문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더욱 체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12월 12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 스킨에서 진행된다. 기초 과정에서는 ESG 경영 혁신 리더십, 외식산업 특과정에서는 실제 적용과 컨설팅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한동대학교 이한진 교수를 비롯해 MYSC 김원희 파트너, 두더지프로젝트 이원중 대표, 메타큐레이션 조은선 대표, 레버리지연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다.

한동대학교는 이번 교육이 세계시민도시 포항, ESG 포항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포항시, UNAI Korea와 함께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